세계자연유산

시라카미 산지 아키타 구역 - 고다케산, 후타쓰모리산, 후지사토 고마가타케산,
다케다이, 다나시로 습원, 도메야마산

시라카미 산지는 아키타현과 아오모리현에 걸쳐 있는 광활한 산악 지대로 총면적은 130,000 헥타르에 달합니다. 시라카미 산지 안에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너도밤나무 원생림이 남아 있는데 그 면적은 16,971 헥타르에 달하며, 1993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역 중 아키타현은 4,300 헥타르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은 보호받는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의 두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핵심지역은 8,000년 이상 사람의 손길을 거의 타지 않았으며,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완충 지대는 핵심지역을 둘러싸듯이 설정되어 있으며, 방문객은 핵심지역과 유사한 삼림 지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도밤나무는 시라카미 산지의 풍요로운 생태계의 중심적인 존재로 동물과 관목의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수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즉, 가뭄을 완화하고 홍수와 산사태를 줄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밤나무는 높이 30m 이상까지 자랄 수 있으며, 수 세기 동안 삽니다. 이 지역에서는 약 100종의 나무 외에 수백종의 식물도 발견됩니다.

시라카미 산지의 숲에는 포유류 35종, 조류 90종, 양서류 13종, 파충류 9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반달가슴곰, 일본원숭이, 일본산양(숫과로 분류되어 '영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털이 덩수룩한 생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의 급경사면 사이에 형성된 계곡에는 하천과 폭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키타현 쪽의 시라카미 산지에서 가장 높은 산들은 후지사토 고마가타케산(해발고도 1,158m), 후타쓰모리산(해발고도 1,086m), 고다케산(해발고도 1,042m)입니다. 해발고도 180m가 안 되는 도메야마산은 이 지역에서 가장 낮은 산 중 하나이지만, 300년 이상 전에 벌목이 금지된 중요한 산입니다.